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시급 계산법, 월급 수준, 퇴직금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와 근무시간,

실제 근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 그리고 퇴직금 조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재가요양보호사, 어떤 일을 하나요?

재가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해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적 지원, 가사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 복약 확인, 옷 갈아입기 등

인지 및 정서 활동: 말벗, 퍼즐, 카드게임 등으로 고립감 해소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병원 동행 등

1대1 또는 2대1 맞춤형 케어가 중심이며,

하루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급여 기준에 따른 것으로,

3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은 가족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시급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하지만 재가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미리 반영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 평균 시급: 12,600원 ~ 13,000원

상한 시급: 13,200원 내외 (어르신 상태, 거리, 교통비 포함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결정)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 평균 18,000원 수준 (비교 참고용)

기관에 따라 시급 차이가 생기는 주요 이유는

어르신 등급

거주지 접근성

교통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월급 계산 예시

재가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며,

근무일수는 평균 월 20~26일입니다.

① 한 집 근무 (기본 근무시간: 하루 3시간)

$12,700\text{원} \times 3\text{시간} \times 20\text{일} = \text{월 약 } 76\text{만 원}$

4대 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 약 66만 원 내외

② 두 집 근무 (하루 6시간)

$12,700\text{원} \times 6\text{시간} \times 26\text{일} = \text{월 약 } 198\text{만 원}$

실수령액: 180만 원 전후

※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세 집 이상 근무 시 월급이 2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체력적 부담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유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기관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이 짧거나

기관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조건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정리: 재가요양보호사 급여 현실표

구분

내용

시급

평균 12,600원~13,000원

월급

근무 시간에 따라 70만 ~190만 원대

근무시간

기본 하루 3시간, 복수 가정 근무로 확대 가능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가능

4대 보험

기관별 상이 (가입 여부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재가요양보호사는 짧은 근무 시간 안에서도

어르신에 삶에 진심을 다해 돌봄을 제공하는 소중한 역할입니다.

비록 시급제 특성상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이 일정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복수 가정 근무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율적인 근무 시간 조절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케어브릿지는 앞으로도 요양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돌봄 종사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

[출처] 2025년 재가요양보호사 시급·월급, 퇴직금 현실 공개|작성자 케어브릿지

